

대외 경제 관계: 최근 북러 경제 관계의 현황과 특성

장호근 / 무역협회 남북교역과장

북한과 러시아간의 경제 교류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북러 관계는 그동안 1990년 韓蘇 수교 이후 정치, 군사,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경제 교류도 양국간 무역시 적용되었던 우호 가격 및 바터 무역이 국제 가격을 기준으로 한 현금 결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1994년부터 동북아 국제 관계 속에서 자국의 입지 강화를 위해 對한반도 균형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이후 북러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교류도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금년 5월 러시아방송은 지난 1996년 9월 효력이 종료된 '북러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할 신조약이 금년 내로 체결될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같은 양측간 관계 개선 움직임에 따라, 1997년도 북러간 교역은 8,300만 달러를 기록해 비록 소폭이지만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시현했다. 또한 경제·과학기술 협정 등 경제 관련 협정 체결 및 인사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북러간 경제 교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최근의 경제 관계 현황과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러시아의 경제 교류 추이

한국과 구소련이 수교했던 1990년만 해도 북한과 구소련의 연간 교역액은 25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북한의 대외 교역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교역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 기반은 대부분 구소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구소련의 기술과 자본 투입에 따라 금속 제련, 석유 화학, 에너지, 자동차, 섬유, 광업 등 북한의 진산업에 걸쳐 생산 시설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전력의 60%, 강재의 33%, 석유화학 제품의 50%, 섬유의 40%를 구소련에 의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도 북한 산업 생산량의 약 70% 정도는 구소련에 의해 세워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형편으로, 이들 공장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부품·장비·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韓蘇 수교 이후, 구소련 와해·경화 결제 전환 등에 따른 경제 교류 급격 위축

이처럼 북한이 구소련에 절대적으로 의존

했던 양국간 경제 관계는 1990년 韓蘇 수교, 구소련의 와해,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정치·군사·외교 관계의 급속한 악화와 함께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1990년 9월 구소련은 종전에 우호 가격으로 연 80만 톤 규모의 원유를 물물 교환 방식으로 북한에 수출했던 것을 국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해 사실상 원유 지원이 중단됐다. 또한 1990년 11월 북한과 「무역대금경화결제협정」을 체결, 1991년부터 무역 거래를 국제 가격에 따른 현금 결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종전 양국간에 오랜 관행이 되어왔던 러시아 일방의 시혜적 성격의 무역이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무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했고, 경화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으로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간 무역 규모는 급격히 축소되어 1991년에는 3억 달러 수준으로 격감했고 이후 1992년 2.9억 달러, 1993년 2.3억 달러, 1994년 1.4억 달러로 매년 감소했으며, 급기야 1995년부터

는 1억 달러 수준도 안되는 규모로 전락했다.

1996년 정상화 모색 이후 최근에는 경험 분위기 고조

이처럼 위축된 북러간 경제 관계는 1994년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對한반도 균형 정책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對북한 영향력 유지,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지정학적 이해 및 북핵 문제, 4者회담 소외와 한러간 경험 수준에 대한 불만 등 요인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 경사되었던 對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1994년 파노프 외무차관의 방북시 양국간 무역량 급감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과의 무역·경제 관계를 새롭게 고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양국은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 속에서 방치되었던 경제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인사 교류도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에는 '新임업협정', '과학기술협

〈표 1〉 북한·러시아간 교역 동향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對러 수출	1,045	171	65	39	40	15	29	17
對러 수입	1,518	194	227	188	100	68	36	67
합계	2,563	365	292	227	140	83	65	84
비중*	60.9	14.0	10.9	8.6	6.6	4.0	3.1	3.9

자료: KOTRA.

주: *는 북한 전체 대외 교역 가운데 북러 교역 비중임.

력계획'을 각각 체결했고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북러간 경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색은 1996년 4월 러시아정부대표단(단장 이그나텐코 부총리)의 방북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양측은 평양에서 '북러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력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였고, 회회에서 무역, 중공업, 임업 등 제분야의 협력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했다. 또한 향후 각 분과 위원회를 통해 경제 협력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그동안 손상되었던 경제 협력 관계 복원을 다짐했다. 1996년 11월에는 「상호투자촉진 및 보호협정」을 체결해 양국간 투자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으며, 북한은 이같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논의 과정에서 김책제철소, 승리화학 등 구소련 지원으로 건설된 공장의 재가동 및 설비 현대화 지원과 러시아산 원유, 코크스탄 공급 등에 큰 기대를 표시하였다.

1997년 들어서는 양국간 관계 개선 및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활발해졌다. 상반기에는 「북러간 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 「과학기술협력의정서」,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이 연이어 체결되었고, 북러간 신조약 체결 협상이 시작되었다. 하반기에는 '북러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간 수산업 협력 방안 및 어획 쿼터 문제를 논의했고, 러시아 천연 가스관의 북한 통과 합의도 알려졌다. 또한 10월에는 '경제과학기술협력위

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최해 채무 상환 문제, 러시아의 대북 투자 문제 등을 집중 토의했으며, 회의 결과에 따라 의정서, 정부간 협정 3건, 당기관간 협정 1건 등을 체결했다. 경제 교류를 위한 논의외에도 항공운수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양·블라디보스톡간 정기 항로가 개설되었고,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여객기 도입이 추진되는 등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이같은 양측의 경제 교류 확대 노력을 반영해 1997년도 북러간 무역은 8,300만 달러를 기록해 비록 소폭이지만 90년대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시현했다.

금년 들어서는 이같은 노력이 가시화되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8년 4월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은 북한 금속공업부와 러시아 석탄 수출 회사인 Merkuri社간에 김책제철소에 대한 코크스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김책제철소 현대화 문제도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양측이 그동안 기울여왔던 경제 협력 증진 노력의 구체적인 성과로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코크스탄을 1998년 4월부터 매월 3만 톤, 1999년에는 매월 9만 톤씩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코크스탄 부족에 따라 가동이 거의 중단되었던 김책제철소의 가동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에는 '북러과학기술공동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가 조인되었다. 회의정서

〈표 2〉 북한·러시아간 최근 주요 협정 체결 및 교류 동향

일자	내용
1997. 1.24	• 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
1997. 3.29	• 북한과학기술대표단 러시아 방문
1997. 5.21	•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
1997. 6.29	• 러시아연방 사하공화국 경제대표단 평양 방문
1997. 7. 4	• 북한 석탄공업부, 러시아 연방 사하공화국간 지하 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투자기업소 창설에 관한 협정 조인
1997. 8. 4	• 평양·블라디보스톡 정기 항로 개설
1997. 9.21	• 러시아농업대표단 북한 방문
1997. 9.26	• 소득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1997. 9.28	• 능라도무역총국·블라디보스톡간 건설 분야 상호협력협정서 체결
1997. 10.13~15	• 경제·기술협정, 식물검역 및 보호협정, 동물위생협정, 농업분야협력협정 등 4건 체결
1997. 10.17	• 북러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2차회의 개최 및 북러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1997. 10.27	• 북러어업공동위원회 개최
1997. 11.19	• 북러 연해주수산업협력공동위, 수산물 공동 협력 계약 갱신
1997. 11.19	• 러시아 천연가스관 북한 지역 통과 합의 보도
1997. 12. 2	• 러시아 항공기 제작사 대표단 북한 방문
1998. 3.26	• 1998~99 과학 및 문화협조계획서 조인
1998. 4. 3	• 러시아석탄수출회사, 김책제철소에 대한 코크스탄 공급 계약 체결
1998. 5. 8	• 제2차 북러과학기술공동위 의정서 조인
1998. 5.30	• 新북러우호조약 금년내 체결 가능성 보도

자료: 통일부.

내용은 상세히 발표되지 않았으나, 북한은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기계 및 농산물 품종 개량 분야의 교류 확대·농작물 지원을 제기하고, 구소련의 지원 하에 건설된 금속·기계 공업 및 에너지 부문의 설비 확장·보수·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경협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금년 5월 러시아 열친 대통령은 박의춘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자리에서, “북러간의 눈에 띄는 경

제·정치 관계의 후퇴와 감소를 극복하려 하며, 신조약 준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내로 완성될 수 있다”고 언급해, 지난 1996년 효력이 종료된 ‘북러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할 신조약의 금년내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조약이 체결될 경우 양국간 새로운 관계 정립이 설정되고 이에 따른 경제 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최근 경제 관계 특성과 전망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변화에 기인, 북한
노동력 활용한 경제 협력에 치중

상기와 같은 최근의 북러간 경제 교류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을 정리해보면, 먼저 양측간 경제 교류가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 합치보다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외교적 정책 변화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물론 경제적 이익 추구 요인이 강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한반도 균형 정책과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경제 교류를 추진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러시아로서는 북핵 문제·4측회담 문제에 소외되고 국익이 손상되었다는 내부 반성에 따라 북한 카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재개하게 되었다.

둘째, 단순 교역 확대 한계에 따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경제 협력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러간의 무역이 지난해 늘어나기는 했지만 북한의 경화 부족 및 對러시아 수출 상품 부족에 따라 대폭적인 신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개발하는 경제 협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광업, 건설, 시베리아 개발, 벌목 등 러시아 천연 자원을 개발하는 다양한 분야에 북한 노

동력이 투입되고 있고, 북한은 노동력 제공에 따른 대가로 對러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농업·수산업 부문에서도 노동력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 수산물 양식 및 공동 어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를 제공받아 이를 정제·수출하는 임가공 방식의 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다.

셋째, 교역의 경우는 제3국 상품의 중계 무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對러 수출 상품 부족 및 對러 수입 결제 능력 부족에 따라 주로 중국, 일본 등 제3국 상품을 재수입·재수출 방식으로 러시아와 거래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對러 수출 품목은 제3국의 자동차, 의료 기기, 냉동 어류, 주류 등이며, 북한 자체의 제품은 상품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북한의 對러 수입 품목은 석유 제품, 천연 가스, 목재, 비료 등으로 주로 에너지 관련 상품이 대종을 이루는데, 북한은 對러 수입품의 약 1/4 이상을 노동력 제공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북한의 對러 교역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8,3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북한의 對러 석유 제품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넷째,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교류 패턴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협력이 주류를 이루다보니, 북한과 인접하면서도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연해주, 하바로브스크주, 사할린주

〈표 3〉 1997년 주요 품목별 북한의 對러 수출입 실적

(단위: 천 달러, %)

북한의 對러 수출			북한의 對러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감률	품목명	금액	증감률
전기 기기	6,026	-51.1	광물성 연료, 광물유	33,423	804.6
의류	1,199	-45.9	철강	4,890	26.8
기계류	606	-45.2	공업 설비	2,721	-
차량	544	-64.2	차량	2,482	-26.8
철강 기기	478	-	목재 및 제품	1,241	-69.5
광학 기기	196	-90.9	암모니아	1,080	847.4
석유 제품	195	-	전기 기기	510	-52.9
수출 합계	16,970	-41.4	수입 합계	66,860	86.6

자료: KOTRA.

동 극동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이에 따라 평양·블라디보스톡간 정기 항로도 개설되고 연해주와의 수산업·건설·임업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정부 및 기업들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호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전망: 양측의 경제난에 따라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듯

북러간 경제 교류는 양측의 경협 추진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면, 교역의 경우 1억 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큰 폭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경협 추진 사유가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외교적 요인이 강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러간의 각종 공동위원회,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경제 지원없이 실현되기 어려운 반면, 러시아도 시장 경제 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대북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고 민간 기업도 큰 관심이 없는 상태이다. 이밖에도 약 30억 달러를 상회하는 북한의 對러시아 부채 문제도 양측간 경협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러간의 경제 교류 수준은 한러 관계 및 동북아 국제 관계의 큰 틀 속에서, 러시아의 對북한 영향력 유지가 가능한 수준 내에서 회복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統**

< 만화 북한기행 >

경협군자

經協 劣作

> 허어 그림 <

